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32주일

제37권 51호(가해) 2017년 11월 12일

[오늘의 묵상]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병회 (장례시 연락처) : (310)569-3940



오늘 복음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먼 곳에서 오느라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밤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등불을 밝히고 나가 신랑을 맞으려 했지만, 일부는 등잔에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듯이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는 주님을 영접하려면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나 선행은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 준비하는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사소한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흔히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세상에 대해 불평하며 세상이 바뀌기만을 기대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세상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악에 물든 채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반면 내가 변하면,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달리 보일 것이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계십니다.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의 삶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늘 자신을 성찰하며 부족한 점을 찾아 이를 정화해 나간다면, 주님을 언제 어디에서 뵈더라도 기쁘게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매일 미사 11월호-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체대회 모임(첫 토요일) 성소후원회(첫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오전 10:00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성소후원회 (2,3,4주일)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양업/성모/차모/대진) ●꾸리아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30 오후 12:3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오전	오후
주일	8시(오전) ~ 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 ~ 7:00(오후)
수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목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금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토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 출발

주임신부 : 심원택 토마스 (310)326-4350 Ext.106
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서성용 베드로, 박순용 요안나, 김귀영 & 권순기,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박레이몬드, 세상을 떠난 모든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 최경숙 수산나, 김민영 엘리사벳, 한금용 요한 & 김숙녀 마리아
	(생)김병조 마틴
학생 미사	(연)박순용 요안나, 성제명 요셉, 김달운 토마스 & 김정애 테레사 & 박태숙 카타리나 & 박성숙 마리아
	(생)주용자 베로니카, 이정훈 안셀모 & 이유진 대건 안드레아
주일 낮 미사	(연) 박정미 클라라, 김정례 수산나, 이운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김진엽 마지아,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 석진남, 차준수 요셉, 송기분 수산나, 차홍석 베드로, 박주현 마리아, 최완옥 세실리아 & 이덕근레오, 유재희 테레사, 송순석 미카엘, 김재순 아가다, 송기인 요셉, 차유순 안당수녀, 김정진 바오로 사제, 장금구 사제
	(생)박홍룡 요셉, 손석 스테파노, 소성덕 사무엘, 박인규 요셉, 최동한 안드레아, 권영환 프란치스코 & 최효진 베로니카, 조화숙 안젤라, 김현숙 벨라타 & 방미숙 마리아 & 우영희 엘리사벳, 정판영 레오 & 김지현 레오니아, 오창근 베드로 사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VI.미약한 반응

58. 일부 국가들에서는 환경개선에 대한 긍정적 모범 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수 십년 동안 오염 되었던 강을 정화 하고 원시림을 복구하였습니다. 환경 개선 계획으로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졌습니다. 아름다운 건물들을 세우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생산과 대중교통 개선에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들로 세계적인 문제 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이가 여전히 긍정적으 로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 에도 우리가 사랑으로 창조되었기에 반드시 관대함과 연 대와 배려에서 나오는 행동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59. 또한 자기만족과 경박한 무책임을 부추기는 거짓되거나 피상적인 생태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결단이 요구되는 심각한 위기의 시기에 종종 그러하듯이, 우리는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실히 모른다고 생각하 게 되는 유혹에 빠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염과 훼손에 관한 몇 가지 피상적 표징을 제외하고는 상황이 그리 심각 해 보이지 않고 지구도 한동안 현재상태를 유지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회피적 태도는 우리가 현재의 생활양식 과 생산과 소비의 방식을 유지하게 해 줍니다. 이는 악행 들을 알아채고 인식하지 않으려 하고, 중요한 결정을 뒤로 미루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자기 파괴적인 악행들을 조장하는 길입니다.

VII.다양한 의견

60. 끝으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가능한 해결책과 관련하 여 다양한 시각과 사조가 전개되었음을 인정합니다. 한 극 단에서는 발전이라는 신화를 맹목적으로 믿으며, 환경 문 제는 윤리적 성찰이나 커다란 변화 없이도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적용으로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또 다른 극단에서는 인간과 그 개입이 위협이 될 뿐이라서 세계적으로 생태계를 위협하므로 지구에서 인간 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줄이고 모든 개입이 금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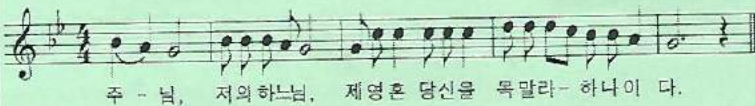
<계속>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81	181	181
봉헌	254	254	268
성제	304	304	289
과전	350	350	346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6,12-16

화답송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 이다.○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 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쁨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을 생각하고, 온밤 지새우 며 당신을 목상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 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2독서 테살로니카1서(1Thessalonians)4,13-18<또는 4,13-14>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다.○

복음 마태오(Matthew) 25,1-13

영성제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 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주어진 현실을 지금 여기에서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야 말로 참된 삶이 아닌가!

저는 얼마 전, 몇 달 동안, 자신도 모르게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병고에 시달린 나머지 어떤 신체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작고 큰 걱정이나 자신이 끌려 다니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불면의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작고 큰 걱정들을 똑바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지낸 과정을 돌아보면서 나의 의식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렀는지를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어제오늘 만났던 사람들과 있었던 일들을 더듬어 보면서, 내 마음이 열려 있었는지 아니면 폐쇄되어 있었는지, 선을 향한 흐름이었는지 혹은 좋지 않은 마음의 흐름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성에서는 이것을 의식 성찰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하루를 마무리 짓는 시간에 갖게 되는 이 의식 성찰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생활의 많은 부분을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때론 쉽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결심을 하곤 하였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용서와 사랑에 맡기는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잠자리가 편해졌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며 단잠을 이루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때 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면증은 잠자리에 든 나에게 미래나 과거를 해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증으로 단잠을 잔다는 것은 현재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깨어 있는 것, 그것은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특별히 받은 소명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삶을, 지금 여기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머물며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 낼 때 과거는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미래는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이렇듯 과거와 미래를 포용하면서, 주어진 현실을 지금 여기에서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그 삶의 내용은 등불이 되어 주위를 밝혀줍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에 비취진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갑니다. 오늘 제1독서의 한 부분입니다. “지혜는 자기에게 맞갖은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을 만나 준다.”(지혜 6,16)

◆홍성만 미카엘 신부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담당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을 치자

양손에 과자를 쥐고 있던 아기에게 초콜릿을 보여주었더니
얼른 과자 하나를 버리고는 초콜릿을 잡더군요.
그렇죠.뭔가를 얻기 위해서
가진 것 하나쯤은 내려 놓기도 해야 하는 것.
둘배기도 아는 그것을
어찌자고 양손 가득 움켜 쥔 줄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까마득히 잊은
두 손 활짝 펴는 법을 아가를 보며 배웁니다

- 이영 아베스-

이번주 전례봉사회

다음주 전례봉사회

이번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례 데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유지아 클라라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	송인선 안젤라	박혜경 레나타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1독서	박진수 스테파노	김교복 레오	정인옥 아오스딩
제2독서	김금자 데레사	한정숙 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김금자 데레사	강혜원 아베스
제물봉헌자			토동 1반	제물봉헌자			토서 1반

- ◆ 교부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11월
위령성월

가톨릭 교회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 위령의 날 (11월 2일)과 연관시켜 11월을 위령 성월로 정해 놓았다.

이달에 신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친다.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열심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들은 날마다 한번씩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만 양도 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전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외에 고백과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해야 한다.

◆ 제34회 남가주 한인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 미사

- 일시: 11월23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점심 : 본당 제공
- 행사당일 오전 10시까지의 공원 입장 무료, 이후는 본인 부담으로 차량 당 \$ 8.00 입니다.(Carpool 을 부탁드립니다.)
- 2부 행사 : 성당 별 장기차량
- 장소 : 엘 도라도 파크 El Dorado Park, East
7550 E. Spring St. Long Beach CA 90815
- 미사집전 : 호세 고메스 대 주교님
- 주관 : 성 그레고리 천주교회
- 이날 본당 평일 미사(목 7:30pm)와 예비자 교리 없습니다.
- 사무실은 휴무입니다.

◆ 독감 예방주사 안내

보험이 없는 분들을 위하여 성당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도와드립니다. 올해는 다소 늦기는 하였지만 아직 예방접종을 못하신 분들은 플라자 약국에서 2주간 주사를 맞으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11월 6일~18일 (2주간)
- 장소 : 플라자 약국 3400 Lomita Blvd
- 문의 : 김충섭 마틴 ☎ (310)530-3010

◆ 안나회 11월 정기모임

- 일시 : 11월12일(오늘 주일) 11시 미사 후
- 장소 : 소 회의실
- 문의 : 이영희 카타리나 ☎ (310) 944-2737

◆ 요셉회 11월 정기모임

- 일시 : 11월19일(세제 주일) 11시 미사 후
-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문의 : 정기은 비오 ☎ (310) 780-2789

◆ 다른 대추 판매합니다

11월19일,26일(주일) 매 미사 후에 품질이 우수하고 맛도 좋은 대추를 판매합니다. 많은 성원부탁 드립니다.

- 판매가격 : \$ 20/마른 대추, \$40/대추액기스
- 주최: 백삼위 올드레이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1월 12일: * **홍합 미역국** (\$3, 토복1,2반)
* 주일학교: 샌드위치 (6 학년)
- 11월 19 일: * **수제비국**(\$3, 하버/카슨)
* 주일학교: 짜장밥 (5 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부금	강숙경 강인모 고천용 김관기 김기정 김상근 김선제 김여순 김윤진 김은학 김정선 김현숙 남명자 박씨니 박음전 박인식 박진희 박홍룡 방정복 손 석 송재훈 양영자 오명섭 우영희 유선식 유중수 윤 철 이근모 이민상 이상석 이영희 이은경 이계옥 장영우 전정일 정규숙 조준제 조화숙 최기남 최태훈 한 영 홍광선 한길선례	성전헌금	강숙경 강인모 고천용 김관기 김기정 김선제 김윤진 김정선 김현숙 남명자 박씨니 박음전 박인식 방정복 손 석 양영자 유선식 유중수 이근모 이민상 이상석 이영희 장영우 정규숙 조준제 조화숙 최태훈 홍광선 한길선례
	합계:\$4,270		합계 : \$1,790
주일미사헌금 :\$2,462		2차헌금 : \$ 649	

◆ 2017년도 VIRTUS 교육

- VIRTUS II (재교육) : 11월 18일(토) 오후 2시~3시30분
(매4년마다 1.5시간)
- 장소 : 강당
- 수강신청 : 이름과 교육 날짜를 문자로 예약,
- 연락처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주일학교 TA 모집

- 주일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을 도울TA를 모집합니다.
- 자격조건 : 견진을 받은 고등부 학생
 - 지원서 제출 및 최종 면담 후에 결정합니다.

◆중·고등부 성경공부 “Junior Bible Study”

- 일시: 11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4시
- 장소: 백삼위 한인성당
- 문의: 이명서 수녀 ☎ (310) 741-0556

◆ 젊은이들의 ‘기도 맞들이기’ 모임 (찬양과 나눔)

- 일시: 11월 첫째, 셋째 주일 오후 4시
- 장소: 백삼위 한인 성당
The Saints Koer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Torrance, CA 90505
- 문의: 이명서 수녀 ☎(310) 741-0556

남가주 소식

◆남가주 '주사위' 찬양가족 모집

'주사위'란 주님의 사랑을 생활성가로 전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의 약자로 남가주 내 생활 음악단체입니다.

- 모집부문 : 남녀 보컬 및 키보드 각 1명씩
- 자격 : 음악을 사랑하고 사명감으로 전할 수 있는 분
- 일정 : 매년 정기 공연 및 음악피정
- 지도 : 성 아그네스성당 최대제 로베르토 신부
- 신청 : 허 사도요한 jusawi1122@gmail.com
☎(213)923-0898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수련(9개월 과정)

- 지도 : 박준성신부 (예수회)
- 기간 : 2017년 9월~2018년 6월
- 장소 : 로올라 영성센터, 성 요셉 수녀원내 영성 건물
434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소공동체 부
장

김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장

비고

토렌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김양금 안나
11/15(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리치오
781-0787

장수영 패트리치오
11/11(토) 오후6시 강당

3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218-7824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11/14(화)오후7시30 성당

토렌스 서

1

박동수베드로
218-7340

김대우 비오
11/19(일) 오후5시

2

김 아네스
(419)309-7256

홍광선 요셉/엘리사벳
11/11(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현정 헬레나
11/11(토)10시30분성당

토렌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458-
3356)

1

최옥희 데레사
755-8462

김준 방지거
11/17(금)7시30분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여순 도미니카
11/14(화)오전11시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11/18 (토) 6시

토렌스 북

황지영안젤라
(938-8089)

1

최미열 클라라
938-8089

최 스테파노
11/11(토)오후5시

2

하버 칼슨

김윤진 카타리나
(997-5545)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11/11(토) 오후6시 성당

2

3

1,2반과 같음

P.V

유지아 클라라
(793-6157)

1

유현화 리디아
735-3722

최재은 베드로
11/10(금) 7시

2

길희정
스콜라스티카
(213)344-9738

박경주 요아킴
11/17(금)오후7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추수감사절 야외미사 대체

4

변복순 베로니카
592-6945

변복순 베로니카
11/08(수)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제 단체모임

1시

다음주일 단체모임

요셉회

1시

깨어있는 당신을 위해

고등학교 시절 밴드를 결성하면서부터 줄곧 노래를 해왔으니 제 인생이 곧 음악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벌써 30년이 되었네요. 결코 녹록지 않은 길이었지만 무대에 오르면 벽찬 회열과 전율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토록 가슴 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라 여기며 언제나 하느님께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한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 걱정도 많았습니다. 스케줄에 쫓기다 보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톱이라는 음악 특성상 고음을 주로 쓰기 때문에 관리도 소홀히 하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무대에 오르면 음악과 물아일체가 되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음 공연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이지요. 그룹 피노키오로 활동했을 때도 무리하게 잡아놓은 공연 일정에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16일 동안 21회 공연을 해야 한다는 건 연극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회가 지나자 목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환부를 해줘야 하나 고민할 정도였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장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선 관객들을 떠올리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연습을 조금만 할걸’, ‘공연 때 적당히 해야 했나?’, ‘내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어쩌지?’ 그런 자책과 불안이 목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마태 6,34)

저는 최선을 다하여 공연에 임했습니다. 두려움에 주춤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 일어나지 않은 일은 하느님께 맡기로 했습니다. 걱정하는 일이 교만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적당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를 거듭할수록 거짓말처럼 목이 풀리면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날개가 달린 듯이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쓰러지기 직전 하느님이 제 손을 잡아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공연을 하고 있는데 울고 있는 관객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공연을 포기했다면 결코 마주할 수 없던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을 마치자마자 저는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수고했다. 아들이”라고 응답하시는 것 같아 자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K2 시절, 수많은 공연과 방송, 대학 축제 때에도 저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올봄, 저는 오

랜 시간을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눈빛만 돌려>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 주고픈 마음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고민을 잠재우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성심을 다한다면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시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능케 하시는 하느님. 저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

◆ 김성면 루카/가수

고해소는 주님의 자비를 만나는 곳

언젠가 교황님이 고해성사 보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교황님도 죄를 짓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해성사를 본다는 것은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고해성사가 냉담 이유 가운데 윗자리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해성사는 하느님과 이웃과 화해하고 치유하는 성사입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싫어하지만, 병이 더 심기 때문에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요즈음 병원에는 그 두려운 마음을 따뜻한 분위기와 음악과 친절로 잘 녹여냅니다. 신자들도 고해성사를 받기 싫지만, 죄 사함을 받아 평화를 얻기 위해서 두렵지만 용기를 가지고 고해소로 향합니다. 그런데 사제가 죄상을 심문하듯이 꼬치꼬치 따지거나, 화를 내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정말로 고해성사 받기 싫어집니다. 냉담에 이르기도 합니다.

2015년 어느 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제는 특별히 자비로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신부는 교구장 주교에게 찾아가 행정 사무직을 맡겨 달라고 청하십시오. 진심으로 부탁하는데, 그런 신부는 고해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서로 용서하고, 겸손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고해소에서 고해를 듣는 도중에 화를 내거나 몰아세우는 신부는 하루라도 빨리 의사를 찾아가 봐야 합니다.”고 하셨습니다. 진정 고해소가 “고문실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를 만나는 장소” (프란치스코 교황 『복음의 기쁨』 44항),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 전동기 신부 / 우동성당 주임

연옥(煉獄)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 하나는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산 이들과 죽은 이들도 기억합니다. 묵주기도를 바칠 때 매 단마다 연옥의 영혼, 특히 가장 외로운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례 때나 기일에 연도를 바치고 위령성월에는 앞서가신 모든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희생하고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 다시 말해 하느님이나 주위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라도 하느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는 먼저 정화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연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주님은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습니다.(루카 22,54-62 참조)

연옥의 느낌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연옥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 가득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실 텐데, 우리는 자신의 악한 행실이나 ‘단순히 사랑 없이’한 행동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움과 뼈아픈 후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화의 고통을 겪은 이후에야 비로소 사랑 넘치는 주님의 시선을 천상의 순수한 기쁨 속에서 마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례 받은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할 시기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아 있는 우리는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사랑은 저 세상까지 이릅니다. 단식과 기도, 선행 그리고 무엇보다 미사를 통해 우리는 죽은 이들을 위해 은총을 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영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공로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한 매우 뜻 깊은 선행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구원송)

Quiz 괄호 안을 채우세요.

단식과 (), 선행 그리고 무엇보다 ()를 통해 우리는 ()을 위해 은총을 청할 수 있습니다

11월5일 자 정답: 지상, 정화 과정, 하늘, 교회

◆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

「성경 속 동식물」 43강인하고 아름다운 향백나무

구약 성경에 70번이나 등장하는 향백나무는 ‘튼튼하게 뿌리를 뺏는 강인한 수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구약 성경 열왕기, 역대기, 사무엘서 등은 건축재로서 다른 모든 재목보다도 향백나무를 귀중하게 여긴 것을 전하고 있다.(2사무 5,11;1 열왕 5,15-32; 예즈 3,7 참조) 솔로몬은 연인의 아름다운 모습을(아가 5,15 참조), 시편 저자는 의인의 번영을(시편 92,13 참조), 예제키엘은 앗시리아의 강대함을 레바논 향백나무의 아름다움에 비유했다.(에제 31,1-18 참조)

◆「성경 속 동식물」/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적금/장례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에이전트
Jay Lee(이안셀포) 310-908-8823
CA Inc.Lic.#0E75182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BRE#01405988 New Star Realty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 (310)987-0736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코지다운/Cozy Down ♣

명품거위털이불, 퀘녹스 등 각종그릇, 한국택배
2424 Sepulveda Blvd # J, Torrance, CA
☎ 310-784-1212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바퀴,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2012 236th ST.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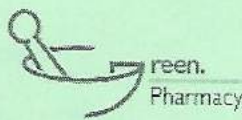
AAA approved repair shop

Body shop & Auto repair

종합정비

☎ (310)965-0481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그린 약국

GREEN PHARMACY

(310)504-0600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310)530-3010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렌스 세플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형식 대기

TEL)310-516-8282

스킨케어

김영란 율리아

☎ (310) 530-3654

1870 W.Carson St. #G Torrance, CA90501

베니스안경원

☎(310) 539-2449

23215 Hawthon Blvd. Torrance, CA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